



겨울철 러시아인들의 건강 지킴이 ‘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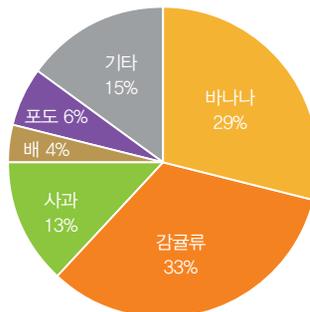


러시아 사람들의 주소비 과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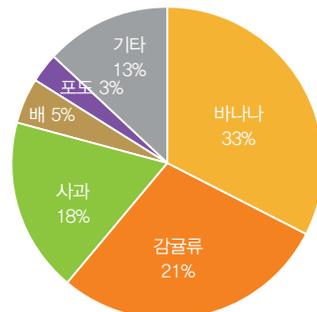
러시아의 재래시장에서는 제철 과일을 주로 판매하지만 유통체인에서는 우리네와 마찬가지로 사시사철 제철 과일은 물론, 이국적인 동남아 과일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은 바나나로 2019년 기준 전체 과일 판매량의 29%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는 감귤류(오렌지, 귤, 레몬 등)가 33%, 사과 13%, 배 4%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의 약 79%를 가까이 차지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어 러시아인의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84% 차지하며 전년 대비 5% 비중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품목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

[2019년 품목별 수입 비중]



[2020년 1-6월간 품목별 수입 비중]



¹ 농산물시장분석센터
(<https://ab-centre.ru/dbase/2/1>)

감귤류 (단위: 천톤)					
국가명	'14-'15	'15-'16	'16-'17	'17-'18	'19-'20
터키	562	415	580	648	520
모로코	169	205	234	233	298
이집트	227	303	244	272	292
중국	122	156	141	147	196
아랍에미레이트	180	142	120	144	161
기타	299	283	250	211	281
합계	1,599	1,504	1,570	1,655	1,748

사과 (단위: 천톤)					
국가명	'14-'15	'15-'16	'16-'17	'17-'18	'19-'20
몰도바	21	57	167	260	296
세르비아	147	199	201	123	162
아제르바이잔	52	33	71	75	95
벨라루스	332	227	40	40	63
중국	85	114	88	153	53
기타	183	117	86	208	123
합계	820	746	653	859	792

배 (단위: 천톤)					
국가명	'14-'15	'15-'16	'16-'17	'17-'18	'19-'20
아르헨티나	70	73	65	83	78
벨라루스	96	117	91	71	68
아랍에미레이트	21	17	24	32	35
중국	31	30	36	46	27
칠레	9	7	12	17	21
기타	594	501	425	610	563
합계	820	746	653	859	792

딸기 (단위: 천톤)					
국가명	'14-'15	'15-'16	'16-'17	'17-'18	'19-'20
터키	13	-	3	13	19
세르비아	5	9	10	9	8
벨라루스	28	18	27	20	5
몰도바	-	0	1	2	4
중국	1	1	2	2	2
기타	2	3	5	4	5
합계	48	31	48	50	44

* 시즌은 전년도 6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임.

그렇다면 러시아 내 유통되는 과일 중 수입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10년간 러시아 과일시장에서 수입산의 비중은 약 85%를 유지해 왔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시즌('18년 7월~'19년 6월)에 러시아 국내 소비량은 654만 톤이었고 같은 기간 내 수입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80만 톤으로 89%를 차지하였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주요 품목인 감귤류의 주 수입국은 터키로 30%를 점유하였고(52만톤), 중국산은 11%(19만톤)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 몰도바산이 37%(30만톤), 중국산은 7%(5만톤)로 나타났고, 딸기는 열매로 구분되는데 터키산이 43%(19천톤), 중국산은 5%(2.3천톤)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유럽/중앙 러시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따뜻한 기후를 가진 흑해 인근의 터키, 몰도바, 벨라루스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산 제품이 유일하게 5위권 안에 속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주 수입국의 지각변동

과일과 채소를 통한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지만, 러시아 대형유통체인 마그니트는 올해 초 중국산 과일과 채소의 납품을 일체 중단한 바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토마토, 파프리카, 감귤류, 포도 등이 해당되며 이들 (중국산) 품목은 전년도 매출액의 약 1%, 청과 판매량의 3%를 차지하였다.

이후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 통제를 결정한 이후에 극동 지역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내 상점에서 중국산 농산품이 품귀 현상이 일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이 지역 내 대형유통체인 삼베리에서 중국산 파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60루블이었다면, 지역 생산품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399루블에 달하였다. 러시아 전체적으로 하우스에서 재배된 온실 채소의 가격이 평균 15-20% 가량 인상된 것이다. 이렇듯 중국산 제품에 수입제한 조치로 인하여 국경에서는 주 소비품목이 우선적으로 통관을 허가하였는데, 오이와 토마토 등이 이에 해당되어 그 외 품목은 국경에서 무기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식료품의 모습은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더불어 러시아는 최근 들어 수요 수입국으로부터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아제르바이잔과 모로코산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발표를 한 바 있고, 또 11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서부 국경 지역인 페르가나산 농산물에서 신종 바이러스(ToBRFV)가 발견되어 이 지역산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의 호르나드주(州)산 배를 검역중에 검역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이 지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위반 제품은 벨라루스산이 아닌 폴란드산임이 확인되었다(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맞수로 유럽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여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초부터 위생 문제로 인하여 중국산 감귤류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출처 : 현재 진행중인 신선 농산물 빌보드 광고 현황

Key Point

우리 농가에게는 수출의 기회로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인 귤은 러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중앙 러시아지역에는 주로 터키산이나 모로코산 귤이 수입되어 유통되지만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터키산, 모로코산 뿐만 아니라 중국산과 한국산 제품도 유통된다. 처음 한국산 귤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하며 소극적으로 귤을 골라 담지만 일단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껍질이 잘 까지고, 속살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씨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골라 담는다. 터키산, 모로코산 귤은 이와 정 반대라고 보면 된다. 껍질을 까기도 어렵고 질경질경 씹어야 하며 껍 하나에 대어섯 개씩 씨가 나온다. 그러나 상품성을 알아챈 극동 체인 상매리는 겨울철이면 자체적으로 제주산 귤을 수입하여 판매한다. 또 새해 연휴가 지날 즈음에는 한국산 배와 딸기도 만나볼 수 있다. 무게당 단가는 동일 품목의 제품보다 조금 높은 편이나 품질과 상품성을 고려하면 부당한 수준은 아니다.



극동체인 <삼베리> 내 귤 판매현황 ①



극동체인 <삼베리> 내 귤 판매현황 ②

블라디보스토크 지사에서는 한국산 신선과일이 러시아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러시아에서 수요가 있는 품목인 귤, 사과, 배, 딸기 제품으로 대형 빌보드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극동지역의 3대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캄차트카에서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하여 인지도를 확대하고 수입이 금지된 국가들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도 가능하다. 나아가 극동지역을 넘어 유럽/중앙 러시아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① <https://zen.yandex.ru/media/id/5cd41c5f0ddfef600b1d6328e/frukty-i-ovosci-po-sezonam-5ed7943cf8f68c2989ad516c> ② <https://iz.ru/967924/2020-01-24/nazvany-samyepopularnyefrukty-i-ovoshchi-uzhiteleirossii> ③ <https://74.ru/text/food/2020/11/29/69583013/> ④ <https://ab-centre.ru/news/-analiz-importa-fruktovv-rossiyuv-2020-godu> ⑤ <https://fruitnews.ru/company-news/51949-akort-koronavirus-ne-peredaetsya-cherez-frukty-i-ovoshchi.html> <https://fruitnews.ru/analytcs/51830-obzor-rossijskogo-rynka-fruktovv-sezone-2018-2019-gg.html> ⑥ <https://fruitnews.ru/analytcs/52633-import-ovoshchej-v-rossiyu-v-yarvare-iyune-2020-goda-snizilsya-na-2-5.html> <https://fruitnews.ru/analytcs/52760-rosselkhozbank-dolya-importnykh-ovoshchej-na-rynke-rossii-sokratitsya-do-10-k-2025-godu.html> ⑦ <https://www.agroxxi.ru/rossiiskie-agronovosti/import-teplichnyh-ogurcov-v-rossiyu-snizhaetsja-i-tak-budet-v-dalneishem.html> ⑧ <https://www.agroxxi.ru/analiz-rynka-selskohozjajstvennyh-tovarov/rynok-ovoschej-v-rossii-chem-mozhno-kompensirovat-snizhenie-vnutrennego-potreblenija-v-2020.html> ⑨ <https://www.agroxxi.ru/analiz-rynka-selskohozjajstvennyh-tovarov/proizvodstvo-jagod-kak-menjalsja-rynok-za-poslednie-5-let.html>